

# 다니엘의 책 - 19번

## 다니엘서에서 'Hour'라는 단어의 예언적 의미

Jeff Pippenger

2023-12-14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서만 등장하는 'hour'라는 단어는 항상 어떤 형태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3장에서는 그것이 일요일 법령을 가리키며, 강조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표상되는 기치에 있다.

4장에서는 그것이 1798년에 첫째 천사의 메시지의 경고가 도래했음을 나타낸다. 4장에서 두 번째로 사용될 때에는 1844년 10월 22일 조사 심판의 개시를 나타냈다. 4장에서는 "hour"라는 단어의 두 번의 사용이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첫째와 둘째 천사들의 메시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 역사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일곱 우레의 역사이다. 일곱 우레는 4장에서 "hour"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된 것으로 대표되며, 따라서 1989년부터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까지의 셋째 천사의 역사도 대표한다.

5장에서 "hour"라는 단어는 주일법을 역시 상징하지만, 그곳에서의 초점은 성경 예언의 첫째 왕국인 바벨론의 종말로 예표된 바와 같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인 미국의 종말에 맞춰져 있다. 3장에서는 초점이 풀무불 속의 기치에 놓여 있었지만, 5장에서는 다니엘이 결국 그 기치를 예표하며 이야기 속에 등장하긴 해도 강조점은 벨사살의 운명과 그에게 내린 특별한 심판에 있다.

일요일법령에서 느부갓네살의 봉헌식의 "한 시간"과 벨사살의 죽음이 표상된다. 4장에서 심판의 개시로 표상된 "한 시간"은 1844년 10월 22일에 조사심판이 개시됨을 지목하며, 또한 일요일법령에서 집행심판이 개시됨을 지목한다. 1844년 10월 22일 하늘 성소에서 심판의 책들이 열리는 일과, 구원을 거절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요일법령 때의 집행심판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일, 이 두 경우 중 어느 것이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는 다니엘 4장에서 "한 시간"이라는 단어의 첫 사용으로 표상되고, 두 종류의 심판 가운데 어느 하나의 실제 시작은 4장에서 "한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사용된 것으로 표상된다.

다니엘이 사용한 "hour"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다의어"에 해당한다. 다의어란 서로 다른 여러 정의를 지니면서도 같은 범주 아래 묶을 수 있는 단어를 말한다. 다니엘이 "hour"라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는 모든 경우가 심판을 가리키지만, 각각은 하나님의 보응적 심판(곧 집행적 심판)이나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조사 심판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다.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조사 심판이든,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 집행적 심판이든, 두 심판 모두 점진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나님의 보응적, 곧 집행적 심판은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고조되며, 마침내 인간의 은혜 기간의 종결과 마지막 일곱 재앙에 이른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의 죽음과 그가 다스리던 나라의 종말로 드러난 하나님의 집행 심판을 보여 주기 위해 'hour'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바로 그 시각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벽의 회벽, 곧 촛대 맞은편에 글을 썼고, 왕은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를 보았다. 다니엘 5:5.

집행 심판은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봉헌한 사건으로도 상징된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일요일 법령으로 야기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 두로의 음녀의 집행 심판과 미국의 집행 심판 역시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시간'이다.

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 말하였다.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성에 내리는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 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달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의 불의를 기억하셨다. 그 성이 너희에게 한 대로 그 성에게 갚아 주고, 그 행위대로 그 성에게 갑절로 갚아라. 그 성이 채운 잔에는 그 성에게 갑절을 채워라. 그 성이 스스로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는지, 그만큼 그 성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이는 그 성이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그 재앙들, 곧 죽음과 애통과 기근이 그 성에 임할 것이며, 그 성은 불로 완전히 사르게 되리니, 이는 그 성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땅의 왕들, 곧 그 성과 더불어 음행하며 사치하던 자들이, 그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볼 때 그 성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고, 그 성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저 큰 성 바벨론이여, 저 능한 성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요한계시록 18:4-10.

미국의 일요일 법령은 점진적이기도 한 집행 심판의 시작으로, 바벨론에 아직 남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깃발의 신호로 불러내심을 받는 "그 시각"에 시작된다. 그것은 "그 큰 성, 바벨론"에 심판이 임하는 "그 시각"이다. "그 시각"이라는 말로 표현된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다른 양 떼가 바벨론에서 불러내심을 받는 기간을 포괄한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서서 백성을 위한 깃발이 될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찾아올 것이요,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곧 두 번째로 손을 펴사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리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이사야 11:10-12.

주께서는 1844년 첫째 천사의 운동에서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역사 속의 둘째 천사는 마지막 날들에 반복될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려고 다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실" 때이다. 그가 "다시" 불러내시는 그 백성의 남은 자는 기가 아니다. 이는 그 기가 "열방이 구하는" "기"로 서는 "이새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열국을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부르실 것이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곧 "유다의 흩어진 자들"로서 "땅 사방에서" 오는 자들을 모으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때는 요한계시록 11장의 거리에서 시체로 누워 있던 사흘 반이 끝나는 때이며, 그 거리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가로지른다.

그 '강한 성'인 '바벨론'에 대한 집행 심판이 시작되는 '때'는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그 '때'와 동일하다. 하나님의 집행 심판은 그 '때'에 시작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지진의 '때'에 칠천 명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 칠천 명은 보통보다 '일곱 배' 더 뜨겁게 달군 풀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다가 죽은, 느부갓네살의 '가장 힘센 용사들'로 대표되었다. 프랑스 혁명에서 그 '칠천 명'은 프랑스의 왕족, 곧 그 강한 자들을 대표했다. 5장에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의 군대도 멸망했다. 일요법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풀무에 던져지는 것으로 대표된 박해를 시작하지만, 동시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집행 심판의 시작을 표시한다.

또한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시"이기도 하며, 이때 이전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뼈들이 깃발로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때이다. 또한 그 "시"는 셋째 화, 곧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이기도 하다.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이며, 그 마지막 화의 나팔의 목적은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뿐 아니라 열방을 격노하게 하는 데에도 있다. 셋째 화, 일곱째 나팔, 그리고 열방을 격노하게 함은 모두 이슬람의 예언적 역할을 다루는 상징들이며, 이 모든 것은 큰 지진의 "시"에 배치되어 있다.

그들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큰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고, 지진으로 사람 칠천 명이 죽었으며,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둘째 화는 지나갔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온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말하였다.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는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하나님 앞 자기 좌석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으며, 주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상을 주실 때가 이르렀고, 또한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가 되었나이다." 요한계시록 11:12-18.

에스겔의 죽은 뼈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그 시간"에 목격하는데, 그때는 느부갓네살의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하고 두로의 창녀가 노래하기 시작하며 배도한 이스라엘이 춤추기 시작할 때이다. 배도한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고, 왕 느부갓네살은 용이며, 두로의 창녀는 짐승이다. 그 춤은 엘리야 이야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숲의 선지자들에 의해 묘사된다. 그것은 또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으로도 묘사되었다. 바알은 거짓된 남성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성 신인 숲의 선지자이다. 그 둘은 함께 교회(여자)와 국가(남자)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 둘은 함께 미국의 거짓 선지자를 나타낸다. 살로메는 그 거짓 선지자가 로마의 딸임을 드러내며, 그 형상은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다.

그러므로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와 유대인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께서 조서를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비파와 양금과 및 각종 악기

소리를 듣는 자마다 엎드려 그 금 신상에게 경배할 것이라 하셨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라 하셨나이다.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기신 몇몇 유다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아삽이 있다. 이 사람들은, 왕이여,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 3:8-12.

그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원수들은 그들이 짐승의 표를 거부한 것을 보고 정해진 판결을 집행하라고 왕에게 청원하였다. 그 "때"에, 땅의 짐승과 맞서는 흔들림(지진)인 일요일 법이 있고, 느부갓네살의 분노와 격노가 나타난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분노와 격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다. 다니엘 3:13.

하나님의 두 증인(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박해는 그들이 절하기를 거부할 때, 즉 요한계시록 11장이 말하듯 그들이 발을 딛고 일어설 때 가해진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본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보더라. 요한계시록 11:11, 12.

굴복하기를 거부하며, 그들은 에스겔의 강대한 군대처럼 두 발로 선다. 그들은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반대하고,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이 셋째 화의 이슬람에 의해 곧 단행될 것임을 밝히는 인침의 기별을 받아 선포할 때 굳건히 선다. 한밤중 외침의 기별은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에게 드러난 '비밀'로 표상되며, 하나님의 마지막 날 백성이 그 '진리'에 굳게 설 때 그들은 곧 닥칠 지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배틀크리크에서의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요양원의 지도자들은 불신자들과 어울려, 다소 그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왔지만, 그것은 마치 눈을 감고 일하러 가는 것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볼 통찰력이 없다. 절망과 전쟁과 유혈의 영이 있으며, 그 영은 때의 끝이 임할 때까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침을 받자마자—그 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라,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리에 굳게 뿌리내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고 흔들림을 맞을 준비가 되자마자, 그것이 올 것이다. 실로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땅 위에 임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어,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 Manuscript Releases, 제10권, 252쪽.

인침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다가 그 후에는 모든 이가 보게 되는 표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에게 드러난 '비밀'로 표상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짐승의 표로 이르게 하는 짐승의 형상의 '비밀'을 받아들인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그 심판은 이슬람을 통해 성취된다. 이는 '절망과 전쟁과 유혈의 영'이 증가하는 때에 일어난다. 그 때가 지금이다. 라오디게아의 눈멀음 때문에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보지 못할 때 이것이 일어난다. 한밤중 외침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인침 과정 동안, 그 인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마에

찍히지만 보이지 않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진리에 굳게 선 자들을 대표한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나? 이제 너희가 준비되었거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비파와 양금과 온갖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좋다. 그러나 만일 경배하지 아니하면, 곧 그 시간에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리하실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다니엘 3:14-18.

그 후 세 의인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을 드러낼 것이다. 먼저 보이지 않는 그 인을 자기 안에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이 보여야 하는 때에 하나님의 인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 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으므로, 그는 명령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게 하였다. 또 그의 군대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이 사람들은 겹옷과 바지와 모자와 기타 의복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타오르는 풀무불 한가운데에 던져졌다. 왕의 명령이 급하고 풀무불이 지극히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들어 올려 던진 그 사람들이 불꽃에 살라 죽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타오르는 풀무불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모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한 사람 세 명을 불 한가운데에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네 사람이 매이지 아니하고 불 한가운데를 거닐고 있는 것을 보노니, 그들에게 아무 상함도 없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 3:19-25.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상징되는 두 증인은 그때 기치로 들려 올려지고, 그러면 인이 보일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오직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 진리를 통해 성화되는 것을 보고, 높고 거룩한 원칙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을 발로 짓밟는 자들 사이의 구분선을 숭고하게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성화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과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표시한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뒤에도 여전히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은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한 불법의 사람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 성경훈련학교, 1903년 12월 1일.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미국은 자신의 예언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유엔의 도움을 구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행하는 그 이적들로 세상을 속일 것이며, 그것은 살로메의 춤으로 상징된다. 그 기만의 춤이 펼쳐지는 동안, 두로의 음녀는 자신의 노래들을 부르고, 느부갓네살의 악대는 음악을 연주할 것이다. 미국은 그 노래를 받아들이고 우상 앞에 절하도록 온 세계를 강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 내가 보니,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있는데, 어린양과 같은 두 뿔을 가졌으나 말하기는 용처럼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그 모든 권세를 행사하며,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던 그 첫째 짐승을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더라.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은 그 표적들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하여, 칼에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줄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도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며, 그 표나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도다.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라. 요한계시록 13:11-18.

마지막 때의 이집트는 세계(그때는 유엔이 통치하는 세계)를 상징하지만,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미국)을 향해 '화'(이슬람의 상징)가 선포되었다. 세 의인이 용광로에 던져져 온 세상의 기치가 될 때, 그 용광로는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용광로가 아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에 의지하고, 병거가 많다 하여 그것을 신뢰하며, 기병이 매우 강하다 하여 그들을 의지하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 또한 지혜로우사 재앙을 내리시며 그의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대적하여 일어나시리라. 이제 애굽 사람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펼칠 때에는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며, 그 모두가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자와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 위에 으르렁거릴 때, 그를 대적하려 많은 목자들이 불러 나와도 그는 그들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란에 굴복하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그 언덕을 위하여 싸우시려고 강림하시리라. 날아다니는 새들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리니, 보호하시며 또한 그것을 건지시고, 넘어가시며 그것을 지키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깊이 배반하였던 그분께로 너희는 돌아오라. 그 날에 사람마다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곧 너희 손으로 너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여 만든 것들을 던져 버리리라. 그때 앗수르는 장사의 칼이 아닌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또 천한 자의 칼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라.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하고 그의 젊은이들은 패하리라. 그는 두려워 그의 요새로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군기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불은 시온에 있고 그의 화덕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사야 31:1-9.

예루살렘은 온 세계가 주목할 영광로이며, 그 안에서 네 사람이 걸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풀무의 입구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방백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몸은 불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고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그들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자기를 의지한 그의 종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시고, 왕의 말을 거슬러 자기 몸을 내어주어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다니엘 3:26-28.

그때 느부갓네살은 또 다른 칙령을 내렸다. 그 칙령은 말세의 최후의 칙령을 상징한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높여 보려는 미약한 시도 속에서 사형 칙령을 반포하는데, 이는 실제로는 세상 끝에 있을 사형 칙령의 예언적 상징이다. 세상 끝의 한 왕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은 로마의 음녀와 간음하는 용의 열 왕들을 상징한다. 예언적 전개에서 다음 칙령은 사형 칙령이며, 비록 느부갓네살이 자기 시대를 위한 선포를 하고 있지만, 그는 사실상 말세의 삼중연합이 내릴 마지막 칙령을 대표하고 있다. 그 칙령은 은혜의 시한이 끝난 후 시행되는 사형 칙령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집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어느 백성, 나라, 언어를 막론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되이 말하는 자는 몸이 토막 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리라. 이는 이와 같이 능히 견져낼 다른 신이 없음이라.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였더라. 다니엘 3:29, 30.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처음 세 장의 내용을 충분히 기록해 두었으므로, '반복과 확대'라는 예언의 원칙에 따라 전개되는 4장과 5장에 대한 고찰을 시작할 수 있다. 다니엘서 4장은 1798년과 땅의 짐승의 시작을 가리키고, 다니엘서 5장은 일요일 법령과 용처럼 말할 때의 땅의 짐승의 끝을 가리킨다. 이 두 장은 세 천사의 기별의 구조 위에 더 쌓아 올리기 위해 앞선 세 장과 '줄에 줄'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줄에 줄'의 원칙을 신중하게 정의하겠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받았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 그 교만한 군주가 자랑하던 지성이 그것을 주신 분에 의해 거두어지는 것도 보았다. 그는 그 왕이 왕국에서 쫓겨나 들의 짐승과 벗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오락과 자기 과시를 사랑하는 벨사살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지워 버렸고, 느부갓네살에게 엄중한 심판을 가져왔던 것과 유사한 죄들을 범했다. 그는 은혜로 주어진 기회들을 허비했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손이 닿는 기회들을 사용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위대하지만 어리석은 그 왕이 무심히 지나쳐 버린 것이었다." 바이블 에코, 1898년 4월 25일.